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 집중 점검

정읍시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급여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수급 및 사용 실태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복지급여가 수급자의 실제 생활에 사용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부적절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는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복지급여를 스스로 관리하거나 사용할 능력이 미약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보장기관이 지정한 급여관리자(부양의무자, 형제·자매, 친·인척 등)가 대신 급여를 수령하고 관리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60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정읍시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며,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 보호에 나섰다.

폐렴구균은 폐렴, 수막염, 균혈증, 부비염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균으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접종이 중요한 방역 수단으로 꼽힌다.

예방접종 대상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연령에 따라 백신 종류와 접종 기관이 달라진다. 60세부터 64세까지는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에서 '폐렴 구균 단백 결합백신(PCV13)'을 접종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 또는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다당백신(PPSV23)' 접종이 가능하다.

단백결합백신을 이미 접종한 경우에는 중복 접종이 불가하며, 다당백신 접종 대상자 중 단백결합백신을 65세 이전에 맞은 경우 1년 후, 다당백신을 맞은 경우는 5년이 경과한 후에 재접종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수소도시 조성 5개 기관 MOU 체결

부안군,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수소경제 선도도시 도약 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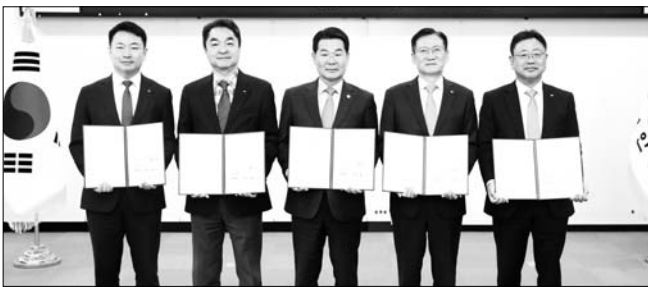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대전환에 본격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23일 부안군청 5층 회의실에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5개 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 한전KPS(사장 김홍연), 한전 KDN(사장 박상형), 한국가스기술공사(에너지사업본부장 송민호) 등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은 군이 추진 중인 수소 기반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참여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수소도시 세부사업 실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군은 정책적 지원 및 행정 협력을, 전북테크노파크는 사업 주관과 실행 추진을, 한전KPS는 그린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을, 한전KDN은 통합운영안전관리센터 구축을,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소 배관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군 수소도시 조성 사업의 주관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수소산업 클러스터화 및 기술 실증을 통해 부안의 수소도시 조성을 주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의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

했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앞으로 구축될 통합운영안전관리센터로 빈틈없는 정보보안 기술과 국내 최고 수준의 에너지 ICT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협약은 부안 수소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적 선언"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벤치마킹 이어져

전북 시·군 잇따라 방문

정읍시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으며 군산·김제 등 타 시·군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사업대상자 200명을 목표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지난 22일에는 읍면동 담당자 6명과 서비스 제공기관 3명이 참여한 가운데 4월 두 번째 통합지원회의를 열고 대상자별 서비스 계획을 심의·결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시범사업 지역

으로 선정된 군산시의 김제시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탐방자 담당자 등 8명이 정읍시의 사업 운영 상황을 견학하며 민간 협력 모델과 통합지원 체계를 주의 깊게 살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35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2차년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다.

현재까지 시는 대상자 200명 중 125명을 발굴하고, 이 중 58명의 어르신

에게는 방문의료, 요양, 생활·주거지원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로 10명의 어르신이 통합지원 대상자로 결정됐다.

서비스는 정읍시장애인상담센터, 재택의료센터, 정읍시물리치료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돌봄 수행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연계·제공된다. 시는 지난 2월 체결한 6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에 이어 정읍아산병원 등 2개 기관과의 협력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총 45종의 통합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청자박물관-목원대학교,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부안청자박물관(부안군수 권익현)과 목원대학교 도자디자인학과(교수 차정일)는 23일 도예가 창업 실무실습교육을 활성화하고 청년 도예가 유치와 전문도에 인력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목원대학교 차정일 교수, 조선주 조교 등이 참석했다.

목원대학교는 대전 최초 사립대학으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



법을 교수하고 연구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대학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설립한 도자디자인학과 벤처기

업을 두고 학생들의 창업지원 현장실습 등 다양한 창업교육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자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발굴, 도자산업 육성 협력, 지역 청자 공예 문화자원에 대한 공동 조사 및 공모사업 추진, 지역 도예가와 교류 등 상호 간의 공동 발전과 지역자원 청자를 통한 인구 유입 및 도자산업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명관 고택, 봄꽃으로 물들다

정읍시, 국가민속문화재 26호 한옥 봄의 절정 알리

고즈넉한 한옥의 기와지붕 사이로 화사하게 핀 봄꽃이 어우러진 정읍 김명관 고택이 봄날의 절정을 알리고 있다.

22일 오전 촬영된 김명관 고택은 진분홍빛 철쭉과 붉은 꽃나무들이 절정의 색을 뽐내며 전통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어우러졌다. 고택의 처마 밑에서 비라본 꽃들은 마치 창틀 속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이며, 봄의 정취를 더욱 진하게 만든다.

특히 마당과 장독대 주변에는 탐스럽게 핀 철쭉들이 자리 잡고 있어, 방문객들은 고택 안팎을 오가며 고택이 품은 자연의 미학을 오롯이 만끽할 수 있다. 비에 젖은 나무기둥과 기와지붕, 흙마당 위로 떨어진 꽃잎까지 더해지며 전통과 계절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 자체로 예술이었다.



시 관계자는 "김명관 고택은 조선 후기 정통 시대부 가옥으로서 건축적 가치뿐 아니라 계절마다 다른 멋을 보여주는 '풍경명소'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고택을 찾아 전통문화의 멋과 정취를 느껴보길 바란다"고 했다.

아흔이홑 칸의 집으로 알려진 김명관 고택은 국가민속문화재 26호로, 1784년 정조 8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한옥 주택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우호협력국 대표단과 국제 농업협력'

고창군, 캄보디아 등 계절근로자 관계자들과 파트너십 확대

고창군이 지난 18~2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협력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정부 관계자들을 맞이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웅 생리터 캄보디아 노동조합훈련부 고문, 아누선 캄심사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 켄 수안 유영 베트남 하남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의 대리인 등 각국과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방문단은 선진 농업 현장을 경험했다.

특히 자국 계절근로자들이 근무 중

인 수확, 딸기, 무 재배 농가를 방문해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또한 상하농원 스마트팜 딸기농장을 방문하여 한국의 첨단 농업기술을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

고창군과 지역농업 관계자(NH농협 고창군지부 이미정 지부장, 백영종 흥덕농협 조합장, 김기욱 선운농협 조합장, 김갑선 해리농협 조합장, 박윤규 대성농협 조합장 등)도 성대한 환영회를 열어 이들을 환영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청보리밭축제, 고창마켓과 교복의상 대여 이벤트

고창군 고창마켓사업팀이 '제22회 고창청보리밭축제'에서 넷플릭스 화제작 '썩ած 속았수다'와 연계한 이색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창마켓사업팀은 고창마켓 입점상품 홍보 및 축제를 기념해 극 중 애순이의 교복과 관악이의 빨간 츄리닝을 의상 대여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아울러, 관광객은 복장을 착용한 뒤 유채꽃밭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개인 SNS에 사진 업로드 필수 해시태그(#썩ած 속았수다 #고창마켓 #고창군 #고창청보리밭축제 #제22회고창청보리밭축제 #고창청보리밭), 고창6급 유튜브 채널 구독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 이벤트를 제공한다.



특히 관악이의 츄리닝에는 '고창군, 노란 완장에는 '고창마켓' 문구가 새겨져 있어 단순한 코스튬을 넘어 자연스러운 지역 브랜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체험형 콘텐츠와 지역 브랜드가 융합된 이번 이벤트는 고창군과 고창마켓의 정체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